

【 해외금융뉴스: 중국 】

중국 보험업계 자산운용 채널확대 논의

- 중국 보험업계는 최근 개최된 전국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에서 정책금리 하락과 투자수익율 감소로 인해 보험업계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산운용채널을 글로벌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함.
- 정협위원인 허쑹생명(合衆人壽)의 타이하오(戴皓) 대표는 이번 회기동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채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그 중 하나로 현재 중국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약관대출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함.
 - 그는 개인 약관대출의 투자위험은 주식투자보다 낮고 수익율과 유동성은 국공채나 회사채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험업계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 법률 검토작업을 마치고 실질적인 제도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채널 확대와 관련하여 지난해 발표된 ‘금융 30조(정부가 제시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향을 명시한 문서)’에는 보험회사의 국채, 금융채, 회사채 매입을 장려하고, 보험회사는 채권매입 형식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기초시설과 신농촌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감위 자산운용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보감회는 조만간 보험회사 자산운용과 관련 ‘기초시설채권투자시행방법(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며, 현재 대형 보험회사로 국한된 주식투자(직접투자)를 중소형 보험회사에게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1세기경제보도 3/6)